

오유경 “신약허가 기간, 세계최단 수준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오 처장, ‘허가·심사 혁신’ 특별 강연
수요자 중심 ‘규제 서비스’ 의지 밝혀
“1차 검토의견, 60일 이상 줄어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병렬·동시 심사를 통해 신약허가 기간을 세계 최단 수준인 240일로 단축한다. 신약 개발 전주기에 제한없는 소통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8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열린 ‘제45차 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 참석, ‘허가·심사 혁신과 규제서비스 대전환’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오유경 처장은 “신약을 개발하는 업계에는 시간이 경쟁력이고 환자에게 하루하루가 희망이다”라며 “지나해부터 인력 선발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고, 지난 1월부터 허가심사 단축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또 규제 공급자 중심의 소극



오유경 식약처장이 28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열린 ‘제45차 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 참석, ‘허가·심사 혁신과 규제서비스 대전환’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적, 관리형 기관에서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규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허가 신청, 심사, 보완, 최종 허가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업이 규제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오유경 처장은 2대 핵심 전략으로 ▲동시·병렬 심사 전환과 ▲제한없는 소통을 내세웠다.

오 처장은 “허가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만 30만장에 달하는 데 제한된 인력

으로 이를 순차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며 “비임상, 임상, 품질 등 단계를 병렬·동시 심사로 전환하면 1차 검토의견이 나오는 기간을 기존 87일에서 25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 심사가 빨라지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 우려도 많은데 총원 인력의 상당수를 안전성 부문에 투입했다”며 “안전을 꼼꼼히 챙기면서도 신속한 허가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강

조했다.

기존 허가 신청 전 2회로 제한됐던 대면회의도 제한없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오 처장은 “허가 심사의 전 주기에 걸쳐 지속 소통하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을 늘리도록 소통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안전을 꼼꼼히 챙기면서도 속도는 세계 최고로 더하고, 적극적인 소통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찬포럼에서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국회의원 초청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대신, 참석한 CEO와 보건복지 분야 기관 관계자들이 오유경 처장과 깊이 있는 질의응답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전혜숙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최일선의 규제기관인 동시에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혁신파트너”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과 산업 발전은 결코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seoilee@metroseoul.co.kr



metro

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용인’ 인수

고품질 시니어케어 서비스 확대

종근당산업은 프리미엄 요양시설 ‘벨포레스트용인’을 인수하며 시니어케어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는 프리미엄 노인 요양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남부 지역까지 고품질 시니어케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했다.

종근당산업은 2021년 고품격 개인 맞춤형 요양원 ‘벨포레스트강일(84베드 규모)’과 2023년 최고급 전문요양시설 ‘더헤리티지너싱홈(130베드 규모)’을 인수한 데 이어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소재 ‘무지개실버케어’를 인수하여 신규 브랜드 ‘벨포레스트용인’으로 전면 리뉴얼 후 개원할 예정이다. 운영은 더헤리티지너싱홈이 맡는다.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가족면회실, 공동거실 등 다양한 생활·재활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병원형 시설이 아닌 ‘집 같은 편안함’을 목표로 한다.

/이세경 기자



코아시스 2호점 조감도. /현대백화점그룹

뷰티업계, 세대교체 활발... 역대급 실적 이어간다

코스맥스그룹 최대주주 변경 공시
이병만·이병주 형제경영 본격화

콜마그룹 주식반환 소송 일단락
2세 체제 불확실성 해소 국면

K뷰티의 글로벌 흥행을 견인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양대 산맥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2세 경영 체제 전환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창업주들이 후계자들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코스맥스그룹의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는 지난 27일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장



이병만 코스맥스 대표,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

외매도로 인해 최대주주가 기존 서성석 외 6인에서 이병만 외 9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거래로 서 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22.61%(217만1419주)에서 13.83%(132만8079주)로 낮아졌다. 최대주주 일가 및 특수관계인의 총 소유비율

은 기존 62.98%에서 63.01%로 소폭 확대됐다.

서 회장의 지분을 매입한 에스에스와이(SSY)와 비제이에이치(BJH)는 각각 이병만·병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 회사다. 이로써 이병만·병주 형제의 직·간접 지분율은 각각 24.34%로 균형을 이룬다. 장남의 경우 개인 19.95%, 에스에스와이 4.39%, 차남은 개인 10.52%, 비제이에이치 4.39%, 또 다른 소유 회사 코스엠엔엠 9.43% 등이다. 현재 장남은 코스맥스를, 차남은 코스맥스비티아이를 맡아 형제 경영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콜마그룹은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매듭지으며 2세 체제 전반기의 불확실

성을 해소했다.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은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식 반환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고, 윤 부회장 측이 동의하며 소송이 최종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두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권 안정화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배경에는 역대급 실적이 뒷받침됐다.

코스맥스는 올해 1분기 매출 6820억원, 영업이익 53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 3% 성장했다. 한국콜마 역시 1분기 매출 7280억원, 영업이익 789억원으로 각각 11.5%, 31.6% 급증했다. 두 회사 모두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롯데그룹, 주요 사업군 실적반등 성공

포트폴리오 리스트럭처링 계획 발표

롯데지주는 전년 기업설명회(IR)를 열고, 올해 1분기 그룹 주요 사업군의 실적 반등 성공과 함께 고강도 포트폴리오 리스트럭처링 계획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주요 투자자 30여 명과 롯데지주 CFO 및 주요 계열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올해 1분기 롯데의 식품, 유통, 화학, 호텔 등 핵심 사업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한 7876억 원을 기록했다. 계열사별로는 롯데쇼핑이 백화점 성장세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2529억 원(+71%)을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했고, 롯데건설(504억 원, +1226%), 롯데델푸드(358억 원, +118%), 호텔롯데(745억 원, +83%) 등 전 사업군의 수익성이 크게 개

선됐다. 롯데케미칼 역시 스프레드 개선과 운영 최적화로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롯데는 체질 개선을 위한 비핵심·저수익 사업 구조조정도 가속화한다. 지난해 롯데델푸드 증평공장과 롯데케미칼 파키스탄 법인 매각 등에 이어, 올해도 롯데렌탈 매각과 롯데케미칼 대산·여수공장 사업재편 등 저효율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유동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미래 신사업인 바이오와 2차전지 소재 투자도 가시화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 하반기 송도 1공장 준공을 통해 글로벌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ESS 배터리 및 AI용 회로박 중심으로 생산 체제를 전환한다. 롯데케미칼은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비중을 확대한다.

/신원선 기자

롯데온, ‘스웬웨어 체크리스트’ 행사

수영복 등 물놀이 용품 할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수영복과 물놀이 용품 할인전에 돌입했다. 이른 더위로 수영장·워터파크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능성과 디자인을 세분화한 상품 구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은 오는 6월 7일까지 ‘스웬웨어 체크리스트’ 행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인·아동 수영복과 래쉬가드, 아쿠아슈즈 등 물놀이 관련 상품을 할인 판매하고 스타일별 큐레이션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에는 배럴, 아래나, 레노마 등 브랜드가 참여한다. 일부 상품은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단독 특가 상품에는 추가 할인 혜택도 적용한다.

롯데온은 입문용 실내 수영 세트와 함께 휴양지용 스웬웨어 라인업도 확대했

다. 하이컷·미들컷·로우컷 등 힙 라인과 타이백·U백·X백 등 백 스타일별로 상품을 구분해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노출 부담을 줄인 지퍼형 수영복과 반신 수영복, 래쉬가드 등도 별도 카테고리 운영한다. 아쿠아슈즈와 수모 등 물놀이 액세서리도 함께 선보인다.

키즈 제품군에서는 래쉬가드와 판초티월, 생존수영 키트 등을 중심으로 상품군을 확대했다.

장선우 롯데온 패션실장은 “최근 급격히 기온이 오르면서 이른 물놀이를 즐기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어 스타일과 기능 등에 따라 수영복을 세분화해 제안하는 행사를 기획했다”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기 전 미리 준비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현대홈쇼핑 ‘코아시스’ 2호점 오픈

현대홈쇼핑이 오프라인 뷰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최초로 선보인 뷰티 편집숍 ‘코아시스(Coasis)’의 추가 매장을 잇달아 열며 상권별 맞춤형 전략 강화에 나선다.

현대홈쇼핑은 현대백화점 전호점에 코아시스 2호점을 오픈하고, 다음달에는 현대아웃렛 가드프라이브점과 동대문점에 각각 3·4호점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코아시스는 현대홈쇼핑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남양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에 처음 선보인 뷰티 편집숍이다.

현대백화점 전호점 지하 1층에 들어서는 2호점은 61㎡ 규모로 조성된다. 백화점 고객의 고기능성 화장품 수요를 반영해 해외 스킨케어 브랜드존을 강화하고, 벽돌과 어두운 톤의 인테리어를 활용해 편안한 쇼핑 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뚜레쥬르 ‘쿨브레드’ 2종 출시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여름철 차갑게 즐길 수 있는 ‘쿨브레드’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시원한 크림과 과일, 크림치즈 등을 활용해 여름철 디저트 수요를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한 컵의 얼그레이&레몬’은 아이스컵 형태의 빵 안에 얼그레이 크림과 레몬 커스터드를 넣은 제품이다. ‘쫄득 딸기우유 크림빵’은 쫄득한 식감의 빵 속에 딸기우유 크림과 크림치즈를 넣은 제품이다.

/신원선 기자